



요약

사실

우리의 삶에 담긴 하느님의 꿈.

양성 여정

... 온유와 사랑으로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7. 신앙의 순명.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8. 평화의 여왕 마리아.

가족연대기

- 파티마 국제대회를 위한 홍보 비디오.

-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 ADMA프리마리아의 새로운 영적 활성화자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의 첫 번째 피정 지도.

- 에콰도르 : 리오밤바에 있는 “사도 성 토마스
교육위원회.

- 사망한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월간 기도지향

온 교회와 함께 여성의 지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담긴 하느님의 꿈

P.1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P.3

올해는 총장님의 살레시오 가족생활지표의 노선에 따라,
돈 보스코의 아홉 살 꿈 200주년을 경축하며,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라는 주제로, 제9회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가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파티마에서 개최됩니다.

P.5

P.7

성 요한 보스코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아홉 살 꿈은, 마리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레시오 영성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영성과 사목을 인도했습니다. 이 꿈의 예언은 파티마
대회를 준비하는 여정에도 빛을 비취 줍니다.

P.9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스승”으로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므로, 여기서 우리의 성찰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P.9

- 제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시는 아저씨는 누구시죠?

P.10

- 너는 순명으로 그리고 지식을 연마하여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P.10

-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연마하라는
말씀이신가요?

P.10

- 나는 네게 스승을 주겠다. 그분의 지도 아래 너는
즐거운 사람이 될 것이며, 그분이 안 계시면 모든
지혜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 이런 식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시죠?

- 나는 네 어머니가 하루에 세 번 인사드리라고 가르쳐 준 **분의 아들**이란단다.

- 저의 어머니는 허락없이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니 아저씨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

- 내 이름은 나의 어머니께 **여쭙 보아라**.

그 순간 나는 그분 곁에서 별처럼 찬란히 빛나는 눈부신 겉옷을 입은 존엄한 모습의 한 부인을 보았다.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 부인은 당신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는 다정하게 내 손을 잡고 말했다.

- **보아라**.

눈을 들어 바라보니 소년들은 모두 달아나고 그 대신 염소, 개, 고양이, 곰 등 다른 많은 동물들이 나타났다.

- 자, 여기가 바로 네 일터, 네가 일해야 될 곳이다. 겸손하고 강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지금 이 순간 네가 보고 있는 이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너는 **장차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게 될 것이다**.

만남은 “제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아저씨는 누구시죠?” 라는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로, 지혜로운 여정으로 들어가게 하는, 마리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 계시적 대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스승으로서의 마리아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목자이시며 안내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순명으로 그리고 지식을 연마하여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느니라’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가르침은 “스승으로부터” 나옵니다. 순명은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로 제시되며, 겸손과 지식 사이의 친밀한 연결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효과적인 학습에는 적극적인 지식 추구뿐 아니라 스승의 지도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리아는 가르치는 스승일 뿐 아니라 겸손을 통해 이해의 길을 보여주는 모범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연마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질문은 요한 보스코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던 지식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신비롭고 거룩한 분은, 마리아를 지혜를 얻게 해줄 스승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어린 요한에게, 지식의 원천인 예수님과 의 연결을 위한 열쇠가 되며, 성령의 선물인 지혜를 얻는 것이 목표이므로, 마리아가 인도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보다 훨씬 깊고 심오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궁금했는데, 오히려 그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 갑니다. “나는 네 어머니가 하루에 세 번 인사드리라고 가르쳐 준 **분의 아들**이란단다” 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표현하며 그의 가르침을 거룩하고 초월적인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스승이신 마리아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해 줍니다. 이 아저씨 이름의 비밀은 어린 요한에게 초월자와의 관계를 탐구하게 하고, 지혜가 단순한 지식추구가 아닌 존재의 근원과 영적 연결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초대하며,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부신 겉옷을 입은 마리아는 천상적 존엄한 모습의 스승으로 드러납니다. 별처럼 찬란히 빛나는 눈부신 겉옷은, 별이 밤하늘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마리아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스승이 아니라,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비추어 주는 지혜의 샘입니다.

요한 보스코는 마리아가 “보아라”라고 초대할 때 이 특별한 계시에 이끌립니다. 바라보는 행위는 깊은 변화를 드러냅니다. 공격적이던 아이들이 사라지고 온순한 양들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변형을 상징하며, 마리아의 지도 아래 세계관이 변모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들판은 요한이 활동할 무대가 되며, 마리아의 가르침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여기가 바로 네 일터, 네가 일해야 될 곳이다. 겸손하고 강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마리아의 말씀은 행동에로의 부르심을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지적인 영역뿐 아니라 지혜의 실천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겸손하고 강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라는 마리아의 가르침은, 자신과 다른 이를 위한 내적 변화에로의 길, 선을 향한 삶의 프로젝트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 대회 기간 동안,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스승이신 마리아의 말씀과 인도에 우리를 맡기도록 초대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겸손함과 인식의 관계는, 마리아가 단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만이 아닌, 거룩함의 보다 깊은 관계에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스승이심을 드러냅니다. 스승이신 마리아의 중요성은, 영적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고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거룩한 스승이신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존재의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양성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제안된 자료는 ADMA 웹사이트 (www.admadonbosco.org/adma-on-l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정보는 대회 전용 [사이트\(www.mariaauxiliadora2024.pt\)](http://www.mariaauxiliadora2024.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께서 파티마의 양치기 세 목동들에게 죄의 무서움과 덕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셨듯이, 요한 보스코를 일생 동안 순명과 겸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살레시오 가족들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회를 통해,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그분의 보호와 손길로,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트레호 신부 sdb,
ADMA 발도코 영적활성자.**

**레나토 발레라,
ADMA 발도코 회장.**

양성 여정

...온유와 사랑으로

온순한 양들은 맹수들이 사라진 바로 뒤에 나타나 그들과 대비되면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요한은 발도코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동 오라토리오를 하던 시절, 아홉 살 꿈과 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아직 사명에 준비되지 않았던 시기라, 아홉 살 때보다 오히려 덜 담대해 보입니다. 1844년 10월 둘째 주일에, “저는 꿈속에서 수많은 늑대와 염소, 양, 숫양, 개, 새들 가운데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고, 용감한 사람마저 겁에 질릴 정도로 악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살레시오 자료집, 1241-1242).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온유와 자비는,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1844년의 꿈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과 양뿐 아니라 양떼의 목자가 될 사람의 내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성숙될 열매입니다. 부활의 열매입니다. 마치 갈릴레아 호수에서 스승과의 첫번째 만남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땅 끝까지” 파견되는 12제자처럼, 부활의 열매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랜 성숙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교리를 통해 우리는 사추덕(지덕, 의덕, 용덕, 절덕)과 향주삼덕(믿음, 희망,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향주삼덕은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의 독창성과 의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덕입니다. 본성과 은총, 은총과 자유가 함께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에너지를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회 회헌에는 창립자에게 온전히 봉헌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21조입니다. “주님께서는 돈 보스코를 우리에게 아버지요 스승으로 주셨다. 우리는 돈 보스코 안에서 본성과 은총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에 감탄하면서 그를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고 본받는다. 인간미 넘치고, 자기 민족의 덕성을 풍부히 갖춘 그는 지상



현실에 열려 있었다. **참으로 하느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은총으로 충만했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는 듯이”**(히브 11,27) 살았다. 이 두 측면은 청소년에 대한 봉사라는 삶의 계획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로 융합된다.” 이것이 그가 원한 애덕입니다.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돈 보스코는 최선을 다해 이에 응답했으며, 누구보다도 어린 양이 된 이리들, 은총의 섭리로 많은 젊은이들이 돈 보스코의 초기 양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본 양들의 온순함은 꽃향기 가득한 봄의 정원 같은 평온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돈 보스코의 삶과 사명, 그 꿈의 실현을 종합해서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양과 목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성서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항상 파스카를 설명하고 조명해 주며, 그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때 우리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태 5,5)라는 성서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 진복-예언의 충만함입니다. 같은 복음에서 온유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더 강하게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9).

복음서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였고 이탈리아어로는 ‘온유하다’고 번역된 PRAUS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는 praeis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온유는, 가장 영예로운 덕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근원은 군대, 더 정확하게는 군대에서 말들을 다룰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프라우스는 잘 훈련된 말로서, 용맹하지만 온순하여,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전투에 투입되어도 즉시 준비가 되어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기사에게 충실한 말이었습니다.

“자선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모든 것을 겪고 있지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질병을 지원합니다.”

겸손하고 강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할 때, 요한은 아직 준비된 상태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는 인내심과 대담함도 없었지만, 항구하게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그가 장미와 가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된 모토, “나에게 영혼을 주고 모든

것을 가져가라”를 통해, 마지막 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돈 보스코는 예방교육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찬가를 마음과 이성과 용기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오랫동안 그것을 실천했으며, 1877년이 되어서야 그의 예방교육에 대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방법의 실천은 모두 성 바오로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Charitas benigna est), 인내(Patens est), 받아들이기(Omnia suffer), 참기(Omnia sperat), 견디어 내기(Omnia sustinet).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 믿는 이들에게 사랑은 충만한 은총의 선물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덕이기에, 모두 이 사랑의 덕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멀고 가난하게 느껴지는 좌절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이 “빛나는 계약”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은혜를 얻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 원의는 일치의 은총, 성령의 움직임과 마음의 조화로, 성 요한 보스코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도록, 경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구를 청해야 합니다.

- 사랑은 끄트머리가 아닌 온 마음을 뜻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모든 발걸음의 시작이며 목적입니다(성체성사처럼).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든, 사람들이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걷기를 시작할 지점입니다. 기도소리도 들리지 않는 성전 뒤편에서 기도하던 세리도, 낙원에 들어가지 못할 십자가 위의 도둑도, 만나서는 안되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없습니다. 돈 보스코의 사랑이 어떠한 장소, 어떤 시간에만 국한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841년 12월 8일 제의방에 있었던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도, 카르마놀라 역의 미켈레 마고네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의 충만함으로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는 목적지, 충만한 삶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이 됩니다.

Silvio Roggia SDB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7. 신앙의 순명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자렛 가정의 특별한 특징, 그 가정이 모든 그리스도교 가정의 모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가족을 하나로 묶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시므로, 가족 간의 자유, 유대, 믿음의 순명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안에서는 생각, 욕구, 행동이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됩니다. 나자렛에서는 오늘날 세상이 잊고 거부하는 **순명이, 자유의 친밀한 형태이자 사랑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순명의 진리

오늘날 우리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자율이고 순명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깊이도 높이도 없는 수평적이고 평평한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수직적이고 차별화되며 상호 작용해야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며, 진실을 말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의어로 느껴지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결례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불편함의 대부분은 자유와 진실, 욕망과 법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이 단순하게 한 사람으로 개인주의를 쫓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므로 잘 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아들과 딸, 형제 자매, 신부와 신랑, 우리를 사랑하는 분의 '너'가 됨으로써 '나'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명은 전적인 의존이나 온전한 독립 또는 독립되지 않은 것처럼 모호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동행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소속감, 수용 및 대면입니다. 말하자면 **순명은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F. 하자드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에세이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주목합니다. 역설적으로 하자르는 가족 안에서 **'독립성이 없는 자유'**, 즉 어떤 경우에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펼쳐지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공간 밖에서의 자유도 이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순명은 숙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복종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하게 됩니다. 순명은 형제애, 효도, 결혼에 대한 협력입니다.

진정한 순명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종교적이고, 형제애, 효도 또는 부부애가 될 수 있지만, 결코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명은 가족 사랑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혼인, 효도, 형제애의 유대로 정의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 말, 상대방의 보살핌에 의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선택받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은 같은 기원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명이 사랑의 경험에 밀접하게 속해 있다는 것은 라틴어 ob-audire 에 뿌리를 둔 단어로써 알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관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명은 자유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며, 라틴어로 자유라는 말의 뜻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말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를 오늘날에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유대 관계가 적으면 더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순명은 믿음이다

성경과 교리교육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믿음의 순명'**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순명이 믿음의 내적 특성이며, 믿음은 순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명은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며,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께 순명하는 것이며, 초대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들 안에서 순명의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순명하는 이들이었으며, 보다 자유롭고, 투명하며, 근본적이고, 새로웠으며, 누구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었습니다. 순명하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높여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독창적이며 모범적이고 틀림이 없으며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느님의 종이기에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8) 라고 하신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1)라는 말씀으로 순종과 자유 간의 긴밀한 관계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권위는 여기에 근거합니다. 신학의 해석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계속될 역사의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요한 12,4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자렛 집에서의 순종

나자렛은 신앙의 순종이 완전히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무엇보다 각 구성원이 하느님의 계획 속에 틀림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 마리아는 “동정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마리아는 유일한 원죄 없으신 피조물, 요셉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불립니다. 순종은 명확성을 가져오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가족 관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독창성을 인정받으면서 성가정은, 말씀의 육화, 동정녀의 잉태, 다윗의 혈통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며, 이것들은 모두 하느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자렛에서 생활한 신앙의 순종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성을 뛰어 넘어, 할 수 있는 가능성 너머, 자유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버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제안하신 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요셉은 하느님의 신부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고민하므로, 두 사람에게 모두 하늘의 영감, 천사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30년 동안 숨은 삶을 사셨는데, 이는

폰 슈피어의 말처럼 ‘하늘 밖에서 변화된 인간의 본성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살기 위해 순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자렛의 가족관계가 모두 목가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은총의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몸짓,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 반응을 보며,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열 두 살이었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해해야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은 신비와 마주하는 것이며, 신비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다면 순종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서른 살이 되어서야, 마리아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처음으로 성전의 율법학자들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요한 2,19, 마태 27,51)! 그리고 그녀는 계약의 궤인 자신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성전”(1고린 3,17 또는 에페 2,21)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Roberto Carelli, SDB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8. 평화의 여왕 마리아

‘**평화**’라는 단어는 성경에 324회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 이상의 의미로, **하느님, 이웃, 온 피조물과의 충만한 생명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의 평화를 기원하며 인사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번째 날에 예수님께서서는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시어 나타나셨으며, 평화를 첫 선물로 주시면서, 이 선물을 세상에 나가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루카 24,36). 예수님에 의하면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 하느님의 아들과 딸의 신원을 사는 사람은 평화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마르 5,9).

평화가 삶의 충만함이라면 전쟁, 갈등은 죽음의 무거움입니다. 갈등은 개인, 가족, 민족 간의 친교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아름다움과 조화도 파괴합니다. 폭격 당한 도시와 마을은 불의 폭력 아래 인간의 생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땅, 공기, 물도 상처를 입고 오염되며 동물들은 떠나거나 죽게 되어 파괴와 고통이 커져갑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개가 넘는 무력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간과 다양한 생물종들은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충만하고 평화롭게 발전시키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긴장 속에 있습니다.

통합적 생태를 위한 노력은 분쟁의 지속적인 확대와 합법 또는 불법의 무기 시장,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학대와 억압, 불행, 착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조화가 충만한 평화는 생태적 전환의 과정에서 열망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평화는 폭력을 거부하고 중재하며, 화해, 배상을 추구하고, 성숙하게 갈등을 관리하며,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과 농촌에서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정의로운 관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갈등보다 평화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회칙 「복음의 기쁨」에서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한 네 가지 행동 분별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여정 안에서 평화의 여왕 마리아께서는, 강력한 기도의 중재로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모범을 통해, 우리 매일의

삶의 선택에 모범과 지침이 됩니다. 사실 평화는 일상적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친구, 이웃, 가족과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평화 건설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평화의 여왕이신 마리아께 드리는 로사리오 호칭기도에 추가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평화의 여왕이신 것은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이신 아드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7세기 리비아의 테오테크노는 성경이 «“하느님의 어머니를 평화의 어머니라고 불렀으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땅에서 싹트리라”(시 84,11)고 했습니다. 평화가 마리아입니다. 정의와 충실함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중세 그리스도교 작가들은 아가서의 ‘사랑하는 이’에게서 마리아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가서의 사랑하는 이는 솔람밋(노래 7,1), 즉 스스로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평화를 가져다주는 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성부의 사랑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며, 아들 예수님과 친밀했던 마리아는, 지상생활 동안 나자렛과 예루살렘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었으며, 하늘로부터 받은 평화의 선물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계속 중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마리아, 요셉, 예수의 일상이, 아무런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살았던 지상의 작은 낙원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나자렛에서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관계적 측면만 보더라도 복잡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마리아에게는 오해와 편견,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를 살고 재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젊은 신부는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시동생, 시누이, 많은 조카들과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대가족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란, 다툼, 사소한 시기와 질투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나자렛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예수라는 인물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나자렛의 숨은 상황들도 알게 됩니다. 나자렛은 주민이 3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로, 모두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어가는 실습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초대 공동체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 그곳에 마리아가 현존했으며 마리아의 현존은 그곳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열 두 사도처럼 이름을 불린 유일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사도 1,14).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초대공동체의 특징을 ‘일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러한 사목적 결실인 일치를 얻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중재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흠어짐을 예언하셨고(마태 26,31),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체포된 후,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여인들과 마리아와 함께 용기를 내어 끝까지 남았습니다. 따라서 초대공동체는 사실상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마리아가 아들을 배신한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모두 자녀로 맞이하지 못했다면, 또한 마리아의 현존이 배신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지속적인 질책으로 작용했다면 어떠 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의 이러한 능력에, 빛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상처받은 세상에서는 자비가 풍성하게 있는 곳에서만 평화가 꽃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용서와 폭넓은 환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상적인 가정이나 이상적인 공동체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용서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엮어가고 다시 엮기 위해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가정, 교구, 이웃들에게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있는 평화는 모든 피조물을 포용하고 생명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증거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린다 포커, FMA



“평화는 마리아입니다.
정의는 그리스도이시며
신실함은 그리스도이니라”

가족의 연대기

파티마 국제대회를 위한 홍보 비디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파티마에서 열리는 제9회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https://mariaauxiliadora2024.pt>) 등록이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이 중요한 행사의 조직팀은 전 세계 살레시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9개의 홍보 비디오 시리즈입니다. 해당 링크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2024년 파티마 (포르투갈)

상호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그룹의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연대 기금”이 토리노 프리마리아에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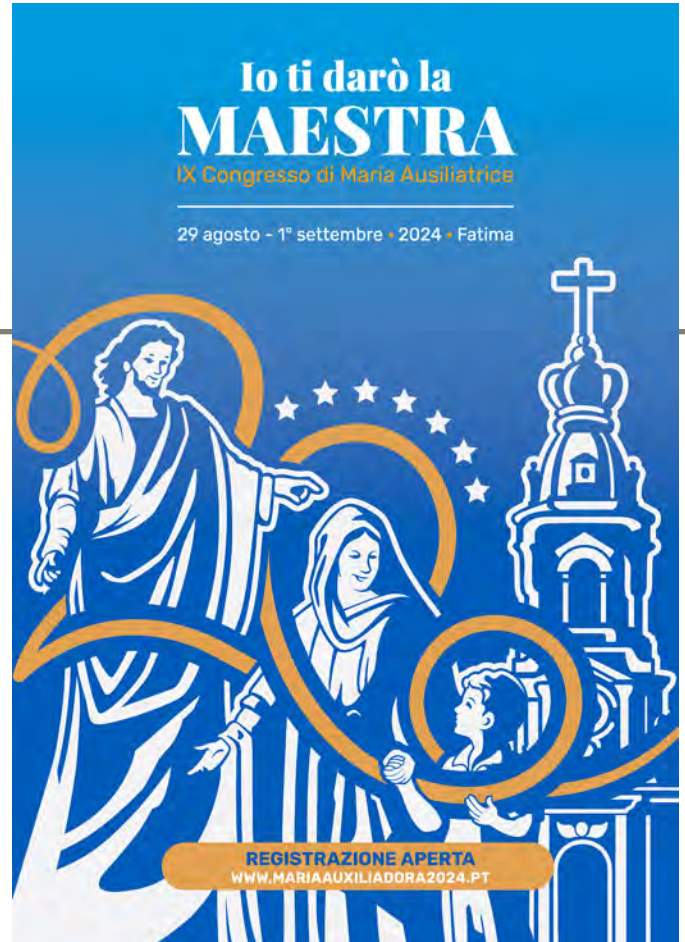
모든 기부금은 ADMA 은행계좌로 송금

- (IBAN IT16 V030 6909 6061 0000 0130 575)

- 하거나 다음 링크

<https://www.admadonbosco.org/>의 지침을 따라 보낼 수 있다.

기부를 위해서, 또 기부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룹 대표는 다음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 문의할 수 있다: adma@admadonbosco.org



받은 금액은 다양한 필요에 따라 쓰여지게 되며, 참가자 개인에 대한 별도의 요구는 없다.

“주님께서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등록이 시작됩니다

www.mariaauxiliadora2024.pt

ADMA프리마리아의 새로운 영적 활성화자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의 첫 번째 피정 지도

2월 4일 일요일, SDB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는 1월 1일 아드마회의 새로운 영적활성화자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아드마 프리마리아의 피정을 지도했습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를 환영하기 위해 쿠미아나의 살레시오 사목터 “레바우덴고”에는 마리아의 망토 아래 여행하는 “가족 중의 한 가족”이 나와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를 환영했습니다. 피정 주제는, 올해의 양성과정에 속하며, 파티마에서 개최되는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의 주제인, 아홉 살 꿈으로서, “이름의 신비,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이는 돈 보스코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해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과 인내로 살아야 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교리교육 외에도 크루즈 신부는 그를 ADMA로 이끈 개인 여정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기쁨을 머금은 미소로 아주 단순하게 살레시오회 회원으로서 자신이 멕시코 출생이며, 살레시오를 알게 된 동기, “거의 우연히” 선택한 신학교 입학,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그 후 10년 동안 초기양성 담당, 교도사목, 멕시코 시티의 거리 청소년들 사목,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수년간 선교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 리오밤바에 있는 “사도 성 토마스 교육위원회”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 증진 노력

살레시안들에게는 돈 보스코 시대로부터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중요하고 기본이 됩니다. 주님께서 돈 보스코의 삶과 교육, 복음화 활동을, 선하신 어머니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오밤바의 살레시오 공동체에서는 성모 신심 증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ADMA 청년 그룹의 구성원들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 강화를 위한 사명으로, 매달 24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29명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남, 여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소통하면서, 리오밤바의 학교와 대학의 청년들이, “사도 성 토마스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도록 활동합니다. 당연히 이들이 방문하는 곳에는 도움이신 마리아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망한 아드마 회원들을 위한 연미사

매월 24일 전 세계에서 사망한 모든 아드마 회원들을 위해 토리노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에서 오전 9시에 추모미사가 거행됩니다.



월간 기도지향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에 따라 전 세계 모든 Adma 그룹의 기도를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온 교회와 함께 여성의 지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성의 존엄성과 그들이 지닌 부가 모든 문화에서 인정을 받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에 대한 희생과 차별이 없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